

2020 FALL Vol.8

인천 119스토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뉴스

을왕동 선녀바위 배수지원
청학동 청량터널 토사 유출 안전조치
가좌동 공장 붕괴
고잔동 대원산업 공장 화재진압

똑똑똑

비대면 시대,
언택트로 안전을 홍보하라!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미디어체크

웹툰 <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표지모델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영국
ISSN
2671-5333



인천소방본부

Contents

2020 Fall Vol.8



내 로프는 믿음직한 생명의 동아줄 인천대간 종주기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으로!
여성 소방공무원 인터뷰

- 04 안전뉴스
을왕동 선녀바위 배수지원
청학동 청량터널 토사 유출 안전조치
가좌동 공장 붕괴
고잔동 대원산업 공장 화재진압
- 08 똑똑똑
비대면 시대, 언택트로 안전을 홍보하라!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 12 인천소방이야기
내 로프는 믿음직한 생명의 동아줄
신임 소방사의 뜨거운 경험
인천대간 종주기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으로! 여성 소방공무원 인터뷰
숲과 치유
- 24 우리지금만나!
기꺼이 감내하는 품격, 소방장 김영국
- 28 마인드테라피
내 마음속 영화 <The Mission(1986)>
- 32 생활 속 소방
수확의 계절 가을,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 숙지합시다
- 34 미디어체크
웹툰<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PART 3
- 38 시민이야기
다시, 인천소방으로 출근하겠습니다
- 40 함께하는 소방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안내
- 41 안전카툰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119 신고 앱서비스
- 42 칭찬합시다

발행인 인천소방본부장 김영중
 발행일 2020년 10월 26일
 발행처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190
 전화 032) 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ISSN 2671-5333
 기획편집 박성석, 김성남, 이경철, 유지연, 변태우
 번역검수 (주)캣스테크
 디자인·기획·편집 (주)착한넷
 070-7092-0999 <https://chakan.net>




Eulwang-dong Seonnyeobawi Rock
Drainage Support

을왕동 선녀바위 배수지원



안전뉴스 1. 을왕동 선녀바위 배수지원

2020년 8월 11일 오전 4시 45분경.

인천광역시 을왕동 선녀바위 해안가로 향하는 길
이 사라졌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선녀바위 인근
도로와 주택이 침수된 것이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
동한 인천소방은 양수기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배수작업을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길게 이어진 배
수작업은 약 7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근 주민
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소방대원들의 협력으로 사
라졌던 선녀바위 해안가 도로는 낮 12시경 다시 모
습을 드러냈다.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8,000천 원

구조활동: 배수지원 500톤

소방력: 소방차 2대, 인원 6명.

장비(종류: 소방차, 동력펌프 2종)




Cheonghak-dong Cheongnyang Tunnel
Sediment Spill Safety Measures

청학동 청량터널 토사 유출 안전조치

안전뉴스 2. 청학동 청량터널 토사 유출 안전조치

2020년 8월 11일 오후 13시 12분.

연수구 청학동 청능 교차로 송도 방향 우회 지점에
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사태는 연일 계속된 호우
로 우측면 절개지에서 토사가 유출되면서 발생하
였다. 소방대원을 포함한 35명의 인력과 8대의 장
비가 투입되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약 6
시간 동안 작업이 진행되었다. 터널은 당일 저녁 7
시경 정상적으로 복구되었다. 이 사고로 왕복 4차
선이 전면 통제되어 운전자들은 도로를 우회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 : 없음

소방력: 인원 35명(소방 16, 경찰 4, 유관기관
15), 장비 8대(소방차 6, 연수구청 2)



Gajwa-dong Factory collapse

가좌동 공장붕괴

안전뉴스 3. 가좌동 공장 붕괴


2020년 7월 21일 오후 8시 51분.

서구 가좌동의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 케미칼 공장에서 화물용 자동차 탱크로리가 폭발했다.

20톤 규모의 탱크로리에서 혼합물 이송 작업 중 ‘펑’ 하는 굉음과 함께 갑자기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변 공장이 붕괴되어 총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다.

인천소방은 오후 9시 11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화재가 없었음에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DMAT(재해의료지원팀)이 가동됐으며 인근 화학구조대와 경찰특공대도 출동해



구조작업에 참여했다. 구조활동은 9시간 만인 다음날 6시경 종료되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구조활동 중 소방대원 1명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인명피해 : 9명(사망 1, 부상 8)

소방력 : 인원 141명(소방 120, 타 기관 21),


장비 51대(소방 29, 타 기관 22)

Fire suppression at Daewon Industrial Plant in Gojan-dong

고잔동 대원산업 공장 화재진압

안전뉴스 4. 고잔동 대원산업 공장 화재진압

2020년 8월 28일 오전 6시 57분.

남동공단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고잔동에 위치한 분체·액체를 도장하는 금속공장에서 일어난 화재였다. 주변 일대가 검은 연기로 자욱하였고, 이른 출근을 하던 시민들의 신고전화가 빗발쳤다. 이날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초기 진압이 가능한 특수장비, 무인방수탑차를 투입했다. 작업 4시간 만인 오전 11시경 불길은 완전히 진화되었다.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화재로 발원지와 인접 공장 일부가 탔으나 출근 시간대 이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 : 없음

재산피해 : 33,000천 원

(부동산 14,300천 원, 동산 18,700천 원)

소방력 : 인원 111명(소방 96, 경찰 12, 한전 3),

장비 48대(소방 38, 타 기관 10)

그림_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화

비대면 시대, 언택트로 안전을 홍보하라!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The non-face-to-face era, Promote safety by untact!
Prevention and Safety Division, Namdong Fire Station

인터뷰이 :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총괄팀장 노우영,
예방총괄주임 이상만, 예방총괄주임 조인자,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장 한규봉
사진 : 김지원, 이지오
인터뷰 : 이지오
글 : 김지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소화기 믿었는데 감지기 없었네~” 익숙한 리듬에 중독성 있는 가사, 여기에 딱 들어맞는 소방관들의 댄스까지. 지난 7월 공개 후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의 일부다. 내재된 흥을 끌어올려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노래하며 춤추던 영상 속 소방관들은 그 유쾌한 모습 그대로 인터뷰에 응했다. 영상을 제작한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안전 대책을 수립해 교육하고 새롭게 시행된 소방정책을 시민에게 전하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맞닿은 역동의 부서다. 함께 있으면 절로 즐거워지는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일원들과 나눈 대화를 정리해 보았다.



Interview

Q. 안녕하세요, 노우영 팀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우영 :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5월에 남동소방서로 전입하여 예방총괄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우영이라고 합니다.

Q.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는 어떤 일을 하나요?

노우영 : 저희는 민원 행정을 처리하고, 다양한 소방홍보활동을 추진합니다. 특히 시기별, 계절별로 소방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소방안전대책 수립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화재를 예방하는 ‘불조심 강조 행사’, 가을에는 ‘안전뉴스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저희 인천소방 직원들의 소방활동 사항과 안전교육 홍보물을 수시로 제작하기도 하고요.

Q. 시민들에게 안전을 홍보하는, 소방과 시민의 연결 다리인 셈이네요.

노우영 : 네 그렇습니다.(웃음) 현재 예방안전과 안에서도 예방총괄팀에서 진행하는 업무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했던 업무로 ‘우리 동네 소화기 함 스마트 맵 제작’도 빼놓을 수 없네요. ‘우리 동네 소화기 함’은 화재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한 작은 소방시설이예요. 남동구 관내에 87개소를 설치해 관리 중인데, 최근에는 인천시 스마트 도시담당관실과 협업하여 ‘스마트 맵’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 맵을 통해 ‘우리 동네 소화기 함’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과거와 달라진 업무가 있으신가요?

노우영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기술발전으로 업무보다는 ‘업무 방식’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대면이나 문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요즘은 비대면과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띄워 두고 대면으로 강의하던 파워포인트 형태의 교육자료를 이젠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하는 게 대표적이죠. 또 다중이용시

설의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스마트 앱을 이용한 자체 점검이 가능해진 점, 소방체험관에 어린이들을 위한 VR 체험존을 조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디지털화되었어요.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방식이라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지만, 훨씬 다양한 형태로 소방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어 기쁘기도 합니다.

Q. 7월에 제작하신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영상물’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노우영 : 이 부분은 영상을 직접 기획한 조인자 주임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인자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홍보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도 그 일환으로 기획되었어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소방정책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영상을 ‘트로트 뮤직비디오’로 제작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Q. 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예방안전과에서 직접 하셨다고 들었어요. 홍보물 제작 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조인자 : 영화같이 탄탄한 시나리오를 써줄 작가, 뽀뽀한 배우들이 필요했는데 소방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처음에는 그런 재주꾼을 찾기 힘들었어요. 다행히 예방안전과에 ‘봉 감독님(소방장 한규봉)’이라 불리는 숨은 인재를 발견해 그 분이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아주셨습니다. 배우 섭외는 감독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유비가 제갈량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 삼고초려했듯, 조르고 달래고 협박도 하며 간신히 캐스팅을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저희들 모두 소방에서는 전문가지만, 영상 제작 분야에서는 철저히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다 새로웠고 공을 들여야 했던 것 같아요.

Q.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웃음) 촬영 중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조인자 : 가수역할을 해주실 분을 섭외한 후, 막상 노래를 들어보니 트로트보다는 시원한 락발라드 스타일이신 거예요.(웃음) 바로 이분이 지금 영상 속 주인공이신데, 사실 노래는 ‘뽕필’이 가득한 다른 분이 불러주셨어요.

노우영 : ‘더빙’이라고 해야 하나?

조인자 : 네. 얼굴 없는 가수가 아니라 목소리 없는 가수가 되어서 영상 속 주인공 역할을 해주셨죠.(웃음) 이외에도 저를 포함한 여직원 몇 분이 백댄서로 참여해주셨어요. 다들 춤은 목석이라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남동소방서에 전직 댄스강사 ‘이현지 반장’이라는 보석이 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분께 3일간 속성 수업을 받아 완성한 춤이 있죠. 건달 역할의 김현성 소방관님도 연기를 기막히게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만나면 미소가 참 곱고 부드러운 분이세요.(다 함께 웃음)

또 저희 남편 파자마 바지를 가져와 쓰는 등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급하게 공수해오거나, 실제 노래방에 갈 수는 없으니 봉 감독님이 구매한 싸이키를 체험장에 설치해 노래방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어요.

이상만 : 영상을 다 만든 이후에 홍보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마침 우리 봉 감독님이 이 영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원곡 가수 영탁 씨 팬클럽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웃음)

한규봉 : 그편으로 먼저 홍보활동을 시작했죠.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장되는 건 안타까운니까요. 새로운 소방정책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만든 거니까.

이상만 : 감사하게도 영탁 씨 팬분들이 영상을 보러 오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훨씬 활발히 홍보됐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Q. 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우영 :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민원 부서’입니다.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소방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분위기예요. 거기다 직원들 모두 밝게 웃으며 열심히 일하는 덕에 더 활기차기도 하고요.

Q. 함께 고생하시는 팀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우영 : 늘 열심히 하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우리 팀원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일을 열심히 하고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 주니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져서 다 같이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미니인터뷰 : 남동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장 한규봉

Q.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규봉 : 안녕하세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 봉 감독, 한규봉입니다. 이전에는 구조·구급·화재 출동 업무를 했었고,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특별조사팀에 소속되어 이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Q. 예방안전과에 오기 전 막연히 상상하던 예방안전과의 이미지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후 느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한규봉 : 현장 출동 업무를 할 때도 예방안전과에서 일하는 건 또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 막연히 짐작했지만 아니나다를까 정말 힘들더라고요.(웃음) 이곳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소방에 관해 끊임없이 분석해야 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좋은 방식을 고민하며 스스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는 부서라는 걸 알게 되었죠.

Q. 동료분들께 ‘봉 감독’으로 불리세요. 영상 제작과 관련한 일을 하시며 보람된 순간이 있나요?

한규봉 : 평소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참여하게 됐어요. 촬영물을 1차로 편집한 후에, 반장님과 팀장님들 앞에서 선보이기 전 제 3살배기 아들에게 보여줬었어요. 첫 관람객은 제 아들인 셈이죠. 아이가 크게 웃으면서 ‘소방차다~!’ 하고 춤과 노래를 따라 하는 모습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규봉 : 시민분들이 새로운 안전정책과 소방시설을 ‘당연히’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에 타면 당연히 안전벨트를 매듯이 소화기 사용법도 누구나 ‘당연히’ 알게 되면 좋으니까요. 소방을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처럼 색다른 홍보활동을 통해 부드럽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민분들께 먼저 다가가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이상만 : 그리고 잠깐!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면전에서 칭찬하기 좀 그렇지만….

한규봉 : 하지 마세요.(웃음)

이상만 : 할 거야~! 아까 조인자 주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이 저희한테는 참 생소했습니다. 특히 편집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섬네일도 눈에 띄게 잘 만들어야 하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면 아예 하기 힘든 일인데 마침 봉 감독님이 참여해주셔서 이 일이 원활하게 잘 되었고, 또 다른 소방관분들의 숨은 공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규봉 :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진짜 포부는 홍보 영상 2탄을 만드는 것입니다.(다 같이 웃음) 

My rope is a reliable life

내 로프는 믿음직한 생명의 동아줄

로프인명구조 경연 대회를 준비하며

글_강화119구조대 소방장 전주성




올해 세 번째 생일을 맞는 대회가 있다. 일반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로프인명구조 경연 대회이다. 국내에서는 짧은 역사의 생소한 대회지만 프랑스, 독일, 대만 등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개최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올해 우연한 기회로 팀을 구성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로프인명구조’라는 것은 사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장소에 고립된 부상자나 조난자를 각종 장비, 특히 로프 등을 이용하여 구조하는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보면 된다.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된 사람에게 로프를 설치하여 다가간 후 구조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혹은, 사람을 직접 구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조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층건물에 로프를 타고 접근하여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안전하게 고정하는 등의 활동도 포함한다. 새로 짓는 건축물이 점점 더 높은 높이로 치솟고, 문화적으로는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 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런 시대적 필요 속에서 ‘로프 구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나와 팀원들은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빙벽훈련장에서 로프 구조 훈련을 했다. 모형이 아닌 실제 산악지형에서 위험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하는 것이 주된 훈련이었는데, 처음 써보는 장비와 낯선 환경 등 생소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는 주로 퇴근 후 훈련장에 모여 80kg에 육박하는 더미를 절벽에서 끌어올렸다. 반복되는 훈련에 체력적으로 버거웠지만, 극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구조대원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역량이라 생각했기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김없이 절벽에 매달렸다. 고립된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여러가지 구조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유능한 팀원들과 끝없이 거듭한 로프 훈련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고공에서 로프에 매달린 채 구조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추락이라는 잠재적 위험요인 속에서도 동요 없이 구조 업무를 이어가려면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익힌 ‘장비 사용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두 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잘 알고 있던 구조 방법도 적용하기 어렵다. 이때 종합적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이는 당황하지 않고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데, 로프인명구조 경연 대회는 이런 연습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다. 꾸준한 훈련과 성실한 연습을 통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 구조대원이 지닌 로프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 튼튼한 금 동아줄이 되어 소중한 생명을 구해낼 것이다. 이번 대회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쟁을 펼치는 자리이며, 열심히 훈련한 이에게 우승의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대회 참가를 앞두고 벌써부터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의 로프가 동화 ‘해님 달님’ 속 남매의 금 동아줄처럼 누군가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믿음직한 생명의 동아줄이길. 다른 참가자들의 로프도 같을 것이다. 로프인명구조 경연 대회의 발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조 기술을 익히고 위험에 처한 이들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울 수 있길 바란다. 



Hot experience of a new firefighter

신임 소방사의 뜨거운 경험

글_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사 남기호



저는 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남기호입니다. 벌써 임용된 지 1년 하고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현장을 마주했고, 오늘은 그중 제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화재현장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방화복, 공기호흡기, 면체 등 우리 소방관들을 지켜주는 개인 보호 장비들이 차츰 익숙해져 갈 무렵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야간 출근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교대 점검을 실시하고 저녁을 먹고, 못다 한 업무를 하며 일과를 보냈습니다. 별 탈 없는 새벽이 지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재출동벨이 울린 건 아침 식사 후 씻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다 말고 뛰쳐나갔습니다.

확인해보니 타 관내 대형마트 화재 지원출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화재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아니나다를까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목적지보다 검은 연기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같이 시커먼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럴수록 더 담담해지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소방관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던 중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출동 중 보았던 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거대한 화마가 마트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나 봤던 화재를 눈앞에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불이 번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고, 또 그렇게까지 뜨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지요. 저는 열심히 선배들을 따라 방수 보조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나르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직접 방수하는 선배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마침내 화마를 잠재우고 귀소하는 길, 문득 든 생각입니다. 그와 동시에, 용감하게 출전수범하여 현장을 책임지던 선배들과 시민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상기하니, ‘정말 값지고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도 우러났습니다.

앞으로도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가끔은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여 훗날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소방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 아주 뜨거운 경험이었습니다. 🚒



Hike along the ridges of
Incheon Daegan

인천대간 종주기

글_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근표

누구나 자신만의 취미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것이다. 취미활동은 반복되는 일상 속 지루함을 해소하고 작은 즐거움을 안겨준다. 내 경우, 오래전부터 취미로 등산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길도 잘 정비되어 있어 한국인에게 ‘등산’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 취미활동이다. 작정하고 높고 험준한 산만 오를 것이 아니라면 장비에 큰돈을 들일 필요도 없다. 물론 호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나 실족과 조난 등 각종 사고에는 유의해야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

인천에는 문학산, 계양산, 마니산 등 곳곳에 다양한 산이 근접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등산을 즐긴다. 특히 계양산과 문학산은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주말마다 수많은 인파가 방문할 정도로 사랑받는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설악산과 소백산 등을 거쳐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 ‘백두대간’으로부터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 산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계양산은 백두대간에서 한강을 축으로 남쪽을 따라가는 한남정맥 중 하나로 인천에는 계양산을 필두로 소래산까지 한남정맥이 이어지며, 이를 ‘인천대간’이라고 부른다.

나는 올해 발목부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취미가 등산이라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산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휴일 무심코 ‘등산이나 가야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물과 에너지바, 마스크 등을 부랴부랴 챙겼고, 멀리 가기는 힘이 드니 인천대간으로 향했다. 3월 발목부상 이후 5개월 만의 산행이었다.

장마가 끝난 후 시작된 뜨거운 폭염에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계산역에서 계양산 입구까지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도 진땀이 나고 ‘오늘 하루 힘든 산행이 되겠구나’ 싶었다. 그냥 돌아갈까 하는 고민을 수차례 되새기던 중 계양산 입구에 도착하였다. 주말이라 방문객이 많았다. 아쉬웠던 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임에도, 3월에도 그랬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등산객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일단 계양산만 넘어가면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숨에 치고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막상 등산을 시작하니 예상보다 몸이 가벼웠다. 마스크로 인해 평소보다 호흡이 가빴지만 단숨에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구름이 많은 탓에 전망이 좋지는 않았다.



나는 그대로 중구봉을 향해 출발했다. 계양산 정상 이후 원적산까지는 인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이때부터는 혼자만의 산행이 가능하다. 계양산에서 급하게 올라가느라 보지 못했던 주변을 그제야 둘러보았다. 숲은 한여름의 색을 띠며 한껏 푸르러져 있었다. 마스크를 벗고 쓰고를 반복하며 중구봉으로 향했다.




멋진 풍경을 보고 싶어서, 운동하고 싶어서, 저마다 등산을 즐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 경우, 제주도여행 중 무심코 올라간 한라산에서 생전 본 적 없는 풍경을 마주한 것이 계기였다. 그때부터 멋진 절경을 찾아 여러 산에 올랐다. 초록이 무성한 숲 속을 걷다 보면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힐링을 선물한 기분이 샘솟고, 정상에 도착할 때면 성취감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강한 햇살에 땀이 줄줄 흘렀다. 이번에는 중구봉을 지나 천마산으로 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척 없이 조용히 산행을 이어갔다. 천마산 도착 후, 이정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가 보이는 도로를 건너 원적산을 향했다.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와 물을 산 뒤 다시 출발. 이 도로를 지날 때마다 매번 ‘개밭로 도로가 생겼지만 원래는 숲으로 이어지는 산길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한다. 천마산에서 내려올 때는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더욱 더웠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고가 다리를 넘었다.

마침내 원적산에 도착했다. 원적정에서 조금만 가면 원적산 정상석이 있는데 구석에 위치해 찾기가 힘들다. 원적산에서 세일고등학교로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 다음은 함봉산이다. 계획대로라면 함봉산 정상석을 지나 장고개를 넘어 부평도서관까지 가야 하지만 심히 고민이 되었다. 장고개를 넘지 말고 열우물 체육관으로 내려가면 곧장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간만의 산행으로 몸이 지쳤고,
곧 해가 질 시간인데 헤드라이트 등 야간산행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늘은 이쯤에서 만족하자’. 나는 그대로 열우물 체육관으로 하산하며
반쪽짜리 인천대간 종주를 마무리했다.
내려오는 길, 어렴풋한 일몰이 나의 종주 산행 마무리를 돕는 듯했다. 



Quickly and accurately to the field!
Interview with a female firefighter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으로! 여성 소방공무원 인터뷰

글_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유용진
인터뷰이_서부소방서 오류119안전센터
소방장 왕희정, 소방교 장여진, 소방사 김혜미



Q. 안녕하세요,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왕희정, 장여진, 김혜미 : 안녕하세요. 오류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장 왕희정, 소방교 장여진, 소방사 김혜미입니다.

Q. 운전원에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왕희정 : 여성 소방관은 약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도움 안 된다는 걱정과 불신을 믿음과 신뢰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신체적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소방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소방차 운전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김혜미 : 여성 소방관은 남성 소방관보다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그보다 컸습니다. 운전이 자신이 있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소방 일에 임하고 싶어 운전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량이 무엇인가요?

왕희정 : 화재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펌프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 가장 앞장서서 길을 뚫고 대원들이 사용하는 소방호스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차량입니다.

김혜미, 장여진 : 펌프차와 물탱크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물탱크차는 펌프차 내의 물이 전부 소모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차량이며, 펌프차로 물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양의 물이 실리기 때문에 차량 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Q. 교육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김혜미 : 멘토 멘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소방차량을 운행하는 베테랑 직원들에게 일대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여진 : 단순 민원출동이나 비 긴급출동의 경우 직접 운행하여 출동하고 기본교육이 끝나면 교육

평가 수료 후 모든 출동에 동원될 예정입니다.

Q. 현장에 투입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출동이 있다면?

왕희정 : 운전원이 된 지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현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중 첫 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고물상화재 건으로 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소화전과 현장을 왕복하며 보수를 도왔습니다. '내가 소방관으로서 제 몫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는 특수차도 운행하는 운전원이 되어 지금보다 많은 현장에 출동하고, 후배 여성 운전원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혜미 : 현장 출동은 아니지만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펌프차 운전 연습 중 신호대기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택시 운전기사님께서 엄지를 척! 들어주셨어요. 그때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김혜미 : 앞으로 소방에서 경험하고 싶은 분야가 많습니다만, 당장은 현장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고 운전기능강사 자격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훗날 저처럼 소방 운전원에 도전하는 직원들을 양성하는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장여진 :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고 싶어요. 기본 출동차량뿐만 아니라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도 도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Forest and healing

숲과 치유

글_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유용진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이제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익숙한 질병이다. 위협적인 상황이나 심각한 상해를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발생한다. 소방공무원들은 긴급한 출동으로 인해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충격적인 상황을 수시로 목격하며, 생명의 위협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도 PTSD에 대한 위험이 큰 실정이다.

음악, 미술, 독서, 운동, 명상 등 여러 가지 활동이 PTSD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숲 체험’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숲은 사전적으로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우거지거나 짙은 곳을 의미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서 살아있는 유기체를 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이자 자연의 보고인 숲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낀다.

상상해보자. 당신은 숲 한가운데 편안하게 누워있으며 흙, 나무, 풀 냄새가 묘하게 어우러져 코로 들어온다. 따사로운 햇빛을 적당하게 가려준 나뭇잎이 휴식하기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잔잔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머리칼락을 살짝 흔들어 간지럽힌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새소리, 바람 등은 오감을 편안하게 해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소방청과 인천소방본부에서도 힐링교실, 숲 체험 등 직원들의 심신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서부소방서는 희망자에 한해 텃밭 가꾸기, 라벤더 테라피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들의 힐링을 돕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라벤더를 채취하며 라벤더 향을 흠뻑 맡을 수 있고, 청사 주변 ‘생명치유 텃밭 가꾸기’를 통해 흙을 만지며 자연과 호흡한다. 함께 텃밭을 가꾸다 보면 직원 간 정서적 친밀도가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숲 체험’이라 해서 거창할 필요도 없다. 숲을 이루는 작은 요소 하나라도 충분하다. 책상 위에 조그마한 화분을 놓거나, 집 주변에 작은 텃밭을 가꾸면 된다. 그 과정과 결과에서 오는 초록빛 힐링이 우리도 모르게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Willing to endure dignity, firefighter Kim Young-guk

기꺼이 감내하는 품격, 소방장 김영국

인터뷰 :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영국

사진 : 김지원, 이지오

인터뷰 : 이지오

글 : 김지현

뚜렷한 눈매에 자신감 있는 미소. 인천119스토리 가을호 표지를 장식한 그는 13년 차 구조대원,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김영국 소방장이다. 가장 젊었던 시절 특전사 출신으로 고된 일 앞에 무너지지 않을 몸과 마음의 근력을 기른 그는 복무를 마친 다음 소방관이 됐다. 이후 부연 잣가루가 날리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찬 수천 건의 대형화재 현장에 출동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도 타인을 돕는 보람된 직업이라 여겨 단 한 번도 소방관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그 마음가짐은 2년 전 찾아온 혈관육종암 판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술과 항암치료를 견뎌내고 또다시 현장 활동을 묵묵히 이어가는 김영국 소방장의 담대한 눈빛에는 그까짓 질병도 맥을 못 춘다.

Q. 안녕하세요, 김영국 소방장님. 간단한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08년 10월 6일 인천소방본부 구조분야 특채로 채용된 13년 차 구조대원 김영국이라고 합니다.

Q. 소방관이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소방관이 되기 전에는 4년여간 특전사로 군 복무를 했는데, 제대 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2001년 흥제동 주택 화재’를 다룬 다큐를 보게 되었어요. 출동한 다수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거나 중상을 입은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다 문득 소방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요청에 응답하고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보람있는 일인지 알고 있었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후 2년 정도 일과 수험생활을 병행하여 소방관이 되었죠.

Q. 동료분들과 굉장히 끈끈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랫동안 함께 근무했고, 다들 이곳 구조대 자체에 애착이 있어요.(웃음) 특히 구조대원들은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현장활동이 매끄럽지 못해요. 그래서 더 더욱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된 것 같습니다.

Q. 소방공무원 임용을 준비할 때,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단련한 분야가 있나요? 13년째 구조대원으로 일하신 소방장님께서 소방관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방관은 지덕체를 모두 갖춰야 하는 직업이에요. 어느 한 가지 역량에 몰두하기보단 두루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하죠. 임용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필기시험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체력도 관리했어요. 그리고 직접 소방관으로 일해보니, 여기에 더해 사명감과 바른 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소방직은 이직률이 높아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거나, 교육 기간 중 퇴소하는 직원도 더러 있거든요. 그 저 공무원이라는 생각에 소방관에 지원하기보다 이 일에 몸담기 위한 남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소방관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심장부터 따뜻하게 데워놓은 후 수험을 준비하시라 전하고 싶습니다.

Q. 유독 기억에 남은 출동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은 출동은 가슴 아픈 기억들이 대부분이라 사실,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니까... 아이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현장을 마주하면 잊기 힘들어요. 특히 결혼 가정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에 속한 아이들이 그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죠.
그밖에는, 여태 소방 생활 중 가장 큰불을 진압했던 날도 기억납니다. 2012년 8월 5일이었는데, 그 날은 제 생일이었거든요. 소방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까지 발령된 거대한 대형화재였습니다. 생일에 이렇게 큰 대형화재를 만나는 것을 보니 제가 정말 소방관으로 지낼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Q. 오래도록 활발한 구조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구조대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제 원동력입니다. 구조대원으로 살면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떠나간 분들을 되새길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져요. 그저 앞으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이 닿는 한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냥 그뿐이고 다른 원동력은 없지만, 그걸로 충분해요.

Q. 소방장님이 출연하신 TV 프로그램 ‘인간극장’을 봤는데, 아침마다 아내분이 만들어준 주스를 드시더라고요. 맛이 어떤가요?

요즘 제가 항암제를 복용 중이라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마다 여러 가지 주스를 많이 갈아주는데, 아무래도 자극적이지 않고 몸에 좋다는 것만 들어가 있으니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랑의 맛이 납니다.(다 함께 웃음) 제 아내가 해준 것이니 뭐든 안 맛있을까요.

Q. 아들, 딸 사진을 보니 너무 귀여워요.

한 배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웃음) 큰아들은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린데 딸은 오히려 대장부 같은 성격이에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참 행복해요.

Q. 인천119스토리 가을호 표지모델이 됐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놀랐어요.(웃음) 저는 평범한 구조대원이고, 한번도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역량을 갖춘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표지모델이 되니 쑥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평범한 제게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Q. 공무상 공상 승인을 받은 직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전한 지원금을 동료 소방관의 공상 입증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다치거나 순직하지 않는 이상, 질병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 소방관들을 위한 공무상 공상 승인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더욱이 저는 희귀암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힘들었죠. 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외침이 있어야 하는 주제라 생각했어요.

Q. 동료분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동료들한테는 늘 전하고 싶던 말이 있죠. 저는 아직 투병 중이지만, 동료들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늘 고생하는 제 동료들이 앞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길, 또 오래도록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Mini Interview

미니인터뷰이 : 강화소방서 119구조대장 김용수

Q. 안녕하세요, 김용수 구조대장님. 김영국 소방장님과는 오랜 인연이시라고요.

네. 김영국 소방장을 안 지가 벌써 15년 정도 되어가네요. 김 소방장이 처음 임용됐을 때부터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소방에 소방서가 10여 곳 있는데, 김 소방장과는 강화소방서에 오기 전 특히 대형화재출동이 잦다는 서부소방서에서도 함께 일했어요. 화약품과 유독물질을 보유한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라 위험한 순간이 더러 있었는데, 그때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소방장은 남달리 뛰어난 대원이고, 제겐 그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아는 동료입니다.

Q.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강화소방서 119구조대 대원들은 전부 몸짱이에요.(웃음)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구조대원으로서 꼭 필요한 역량 1순위는 체력이라 생각해서 다 함께 관리하거든요. 큰 화마를 장시간 진압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평소 체력관리를 해두면 현장에서 유리하죠. 수난사고나 산악사고 현장에서 기조체력이 탄탄하면 보다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또, 강화소방서에는 저희 119구조대 말고도 산악구조대가 있는데 북쪽 접경지역은 저희가, 남쪽은 산악구조대에서 전담하고 계십니다. 산과 물이 많은 지역이라 그만큼 산악 및 수난사고가 잦은데

그만큼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구조대’라는 마음으로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하고 안전관리에도 철저하지요.

Q. 다들 체력이 좋으시다고요. 평상시 어떻게 체력관리를 하시나요?

저희 구조대원들은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체력단련시간을 가져요. 그때 주로 개인 운동, 턱걸이, 달리기를 합니다. 구조대 위쪽으로 올라가면 추모원이 있거든요? 종종 그 추모원 정상까지 멈춤 없이 한 번 만에 뛰어갔다 돌아오는 코스를 시행합니다. 저희 구조대 특성상 높은 곳까지 뛰어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 동료들과 함께 운동하면 아무래도 더 힘이 나니까요. 제 마음은 그래서 구조대장의 방침으로 살짝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 대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웃음)

Q. 마지막으로 대원분들께 격려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항상 술선수범하는 계정만 부대장, 대장과 대원들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우리 김영국 소방장, 그리고 힘든 업무에도 내색 없이 책임을 다하는 우리 대원분들. 모두에게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 함께 활기찬 모습으로 지내자는 말 전합니다. 대원들끼리 서로를 돕고 화합할 줄 아는 멋진 강화소방서 화이팅입니다! 





내 마음속 영화 The Mission (1986)

Movie in my heart
<The Mission(1986)>

글 :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반석
사진 : 영화배급 주식회사 더쿵(The Coup Corporation)

<The Mission(1986)>은 너무도 오래된 영화다. 하지만 내겐 포도주처럼 날이 갈수록 향을 더해가는 그 무엇이다.

<The Mission>은 롤랑 조페 감독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탁월한 영화 음악감독 엔니오 모리코네와 제레미 아이언스, 로버트 드니로 등 멋진 배우들이 출연하여 그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영화 속 삽입되었던 ‘가브리엘의 오보에’는 훗날 키아라 페르라우가 가사를 붙이고 세계적 팝페라 가수인 사라 브라이트만이 노래 불러 1998년 앨범 ‘에덴(Eden)’에 수록되었다. 흔히 알고 있는 ‘Nella Fantasia’가 바로 그것이다.

영화는 1750년 남미를 배경으로 한다. ‘가브리엘 신부(제레미 아이언스)’는 폭포 위 대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원주민 과라니족 마을에서 선교를 하며 이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는 노예상이었던 ‘멘도사(로버트 드니로)’가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절망하고 있을 때 과라니족 마을로 함께 가자고 권유한다. 가브리엘 신부의 권유로 자신이 노예로 팔아넘기던 폭포 위 원주민 마을로 들어선 멘도사. 그는 이들과 어울리며 차츰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짧은 평화는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당시 제3세계가 그랬듯 이곳 과라니족의 마을 또한 유럽 열강의 영토로 편입됨에 따라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다.

지금도 떠오르는 영화 속 몇 장면을 짚어보며 내 속마음을 정리해 본다.



장면1 오보에를 부는 가브리엘

영화 초반, 폭포 위 원주민들의 숲에 들어간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부는 장면이다. 목숨을 걸었기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자의 악기 소리에 마음이 통했던 걸까? 이내 원주민들은 그를 품는다. 진정 통하는 사람들 간에는 말이 필요 없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요, 염화시중(拈華示衆)이다. 자신의 생각을 수많은 미사여구와 군더더기 말로 이래저래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다.

장면2 절벽을 오르는 멘도사

노예상이었던 멘도사가 폭포 위를 오르는 장면이다. 그는 자신의 칼과 갑옷 등 원주민을 잡아 노예로 팔아 넘기는 데 사용했던 무기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엮어 짊어지고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천사가 되기에 너무 악하고, 악마가 되기에 너무 선한 것이 인간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외줄 타기를 하고 있다. 아무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용기다. 자신의 흠을 짊어지고 한평생 살아가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겠지만, 참된 용기란 자신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떨쳐내 버리는 것이다.

방법이야 여럿 있겠지만, 영화에서 멘도사는 자신이 칼로 죽이던 원주민의 본거지를 향해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무던히도 자신을 혹사시킨다. 마침내 그가 과라니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멘도사의 몸에 묶여 있던 꾸러미들은 원주민들에 의해 떨어져 나가 폭포 밑으로 떨어진다. 뒤따르는 멘도사의 울음 섞인 회한의 웃음. 용기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유다. 이제 또 다른 삶을 이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장면3 십자가를 건네는 가브리엘

칼을 지닌 채 찾아와 축복을 원하는 멘도사에게 가브리엘 신부는 축복해주기를 거절한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건네준다. 가브리엘 신부는 자신의 신념을 온전히 드러내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신념을 가진 멘도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대단한 내공이다.

인간은 모두 같을 수 없다. 저마다 제 색깔이 있다. 사는 동안 조직, 공동체, 가족 등 자연적으로, 때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울타리 안에 거하며 잠시 삶의 의미를 찾을 뿐,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의든 타의든 잠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울타리를 걷어내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 우리네 본성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내게 큰 화두인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제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다. 그와 더불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더 해볼 만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더 내공을 기르면 가능할까?



영화는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사가 원주민들과 함께 죽음을 맞음으로써 막을 내린다. 하지만 여전히 귓가엔 가브리엘의 오보에 소리가, 눈앞엔 멘도사의 울음 섞인 회한의 웃음이, 마음속엔 가브리엘 신부가 멘도사에게 건네준 십자가의 잔상이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다. 

수확의 계절 가을, 안전한 농기계 사용법 숙지합시다

Let's familiarize ourselves with the safe use of agricultural machinery in autumn, the harvest s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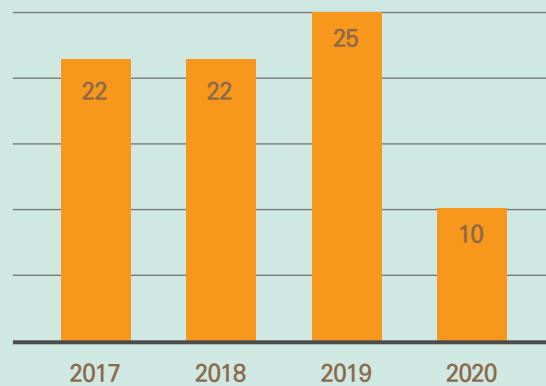
인포그래픽_강우리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한 농업인들이 본격적인 추수 작업에 돌입했다. 경운기, 탈곡기, 기계톱, 트랙터, 예초기... 농업 기술 발전에 따라 성능이 향상된 농기계는 사람 손을 덜어주는 아주 유용한 동반자지만, 사용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인천119스토리 가을호에서는 농기계 관련 사고 현황과 농치면 안 될 안전 수칙을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다.

연도별 농기계 사고 관련 소방인력 출동 현황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 매년 스무 건 이상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추수 시기인 10월에 농기계 관련 사고 이송 건수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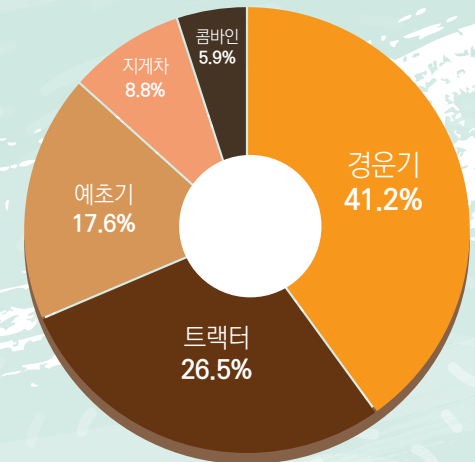


*2020년도는 1~7월까지의 수치.

농기계 사고 원인별 이송비율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곡선도로에서의 경운기 고속 운행 중 사고 비율이 전체의 41.2%로 가장 높았으며, 트랙터 사고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중 절반 이상이 '이동형 농기계' 관련 사고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참고자료 출처_인천소방본부, 소방청

- 첫째** 평소 농작업 안전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각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다. 특히 농기계 동력 차단 방법과 엔진 정지법을 파악하여 위기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둘째** 기계 사용 전과 후 작동상태를 반드시 점검한다.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거나 움직임에 이상을 인지하면 곧바로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한다.
- 셋째** 농기계 사용 시 안전모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소매가 길거나 헐렁한 옷은 기계에 말려들어 위험할 수 있으니 되도록 몸에 붙는 옷과 사이즈가 맞는 안전화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은 망으로 덮어 모자 속에 넣는 것이 좋다.

- 넷째** 작업 시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한다. 별이 뜨거운 한낮, 혹은 싸늘해진 겨울철 오랜 시간 작업을 이어가면 쉽게 지치고 긴장이 풀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신체가 기온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섯째** 농기계로 도로 주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경운기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느리다는 생각에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 농기계 관련 사고는 경운기, 트랙터 등의 이동형 농기계 관련 사고가 대부분이다. 내리막길 주행 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도로변에 주차한 승합차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웹툰

<1초>를 보고 대원분들께 물어요! PART 3

Watch the webtoon <1 Second>
and ask the crew! PART 3

“<1초>는 제목처럼 찰나를 다투는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담은 네이버 웹툰이다. 주인공 ‘호수’가 새내기 교육생으로 소방학교에 들어선 때부터 모두가 존경하는 전설의 소방관으로 불리기까지의 긴박감 넘치는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재미와 감동은 물론 소방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실제 소방직에 근무하는 이들도 감탄하며 즐겨본다는 <1초>! 이번호에선 이 웹툰을 보며 생긴 궁금증을 현직 대원분들께 직접 물어보았다.”

글_조해인

< 긴급한 상황 소방대원들의 요구조자 위치찾기 > -6화 중-

주인공 호수가 요구조자를 구출하기 위해 약도를 보며 위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Q. 요구조자 구출 시에 길은 약도만을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A.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로부터 건물 내부 구조, 평면도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진입 경로와 탈출 경로, 구조 방법 등을 결정하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합니다. 구조대원들은 가능한 건물 전체와 그 주변을 검색, 관찰합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화재의 규모와 건물의 손상 여부, 진입 경로와 소요 시간 등을 예측합니다.

Q. 긴급한 상황에서 약도 확인을 못 할 시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나요?

A. 건물에 진입한 후에는 상황실과 지휘차 등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무전을 통해 받고 화재 현장으로부터 대피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과 요구조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 소방대원 간의 사건 발생 시 연락 > -6화 중-

윤현성은 요구조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팀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무전 연락을 취하고 있다.

Q. 보통 출동 시에 몇 개의 팀이 함께 이동하나요?

A. 화재 현장으로부터 가까운 지휘팀, 안전센터, 구급대, 구조대 등 3~4개 출동대가 함께 출동합니다.

Q. 장면 속 '1관'과 '2관'에서 '관'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A. 1관, 2관은 A동, B동 같은 건물 동을 지칭하거나 건물에 투입된 활동 조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장 활동 시 반드시 2인 1조로 활동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대체하고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위원회에 관하여 > -6화 중-

주인공 호수에게 맞은 구진태는 이번 기회를 악용하여 호수를 밀어내려고 뒷사람에게 부탁하여 징계 위원회를 소집할 꾀수를 부린다. 그로 인해 주인공 호수는 경위서를 작성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Q. '징계 위원회'가 열리는 사건은 어떠한 것들이 해당하나요?

A. 금품수수, 성 비위, 음주운전, 폭행 등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Q. '징계 위원회'가 열리고 경위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 중에는 소방대원들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나요?

A.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징계로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 기간에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 행정과장님이란? > -68화 중-

구진태 반장은 행정과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주인공 호수를 밀어내려고 연락을 취한다.



Q. 행정과장이라는 자리는 소방에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나요?

A. 서장 공백기 직무대리자로 서장의 권한을 대행하며, 조직 내에서 서장의 다음 서열입니다.



Q. 행정과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A.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징계로 정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으면 징계 기간에 업무수행이 불가합니다.



< 징계 위원회에 관하여 2 > -69화 중-

징계 위원회가 소집되고 해당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으로 소방위원과 외부인사가 소개된다.



Q. 징계 위원회에서 소방위원과 외부인사 분들이 심사를 맡는 이유가 있을까요?

A. 소방의 징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소방위원과 별도로 외부인사를 위촉합니다. 보통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수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지요.



< 표창장에 관하여 > -70화 중-

구진태 반장의 진술을 듣고 작도 119안전센터 내 사람들은 표창장을 받기 위해 머리를 쓰고 있다고 유추하고 있다.



Q.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적이 필요하나요?

A.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수한 시책 추진으로 소방행정발전에 이바지한 자,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에게 수여합니다.



Q. 표창장은 어디서 유의미하게 적용될까요?

A. 근무성적 평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평가, 승진 심사 등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개인적인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답변 주신 대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방위 배수환 님, 소방위 윤일규 님, 소방위 유지연 님

다시, 인천소방으로 출근하겠습니다

Again, I will go to the Incheon Fire Department

글_영종소방서 운남119안전센터 기간제 구급대원 김효정



안녕하세요. 지난 6월부터 영종소방서 운남119안전센터에서 대체 근무로 일하고 있는 김효정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후, 지금은 구급대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는 중입니다.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구급대원’이 되고자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실수로 눈에 페인트 래커가 들어갔습니다. 동생과 함께 안과를 찾아가지만 주말이었던 탓에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한 채로 119에 연락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구급 반장님과 기관 반장님께서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제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잘 달래주셨습니다.

한 구급대원님은 겁먹은 제가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본인을 삼촌이라 칭하시면서 ‘네 눈은 괜찮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도 저와 동생을 대신하여 접수를 해주셨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주셨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듬직한 구급대원님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았던 도움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진로를 구체화했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응급구조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후 소방관 특채 요건인 임상경력 2년을 채우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년, 인천소방본부 상황실 구급상황관리사로 약 4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부터는 이곳, 운남119안전센터에서 구급대원분들과 함께하며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달여간 구급대원분들 옆에서 실제 응급 상황을 함께 마주하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급대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가 잦아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갑갑한 보호복을 착용한 채 활동하시는 모습, 영종도 내에 종합병원이 없어 섬 밖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나 인하대 병원까지 환자 이송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매번 출동할 때마다 반장님들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남다른 책임감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운남119안전센터에서 일할 날이 4달밖에 남지 않아 아쉽습니다. 남은 기간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내년 에 꼭 구급특채로 합격하여 다시 인천소방에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안내

2020 Children's Fire Watch Poster Drawing Contest Information

인천시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매년 꾸준히 진행되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은 화재예방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소방과 아이들의 안전공감대를 형성한다.

11월 30일까지 불조심 관련 포스터 작품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심사를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안전홍보 효과가 큰 작품을 출품한 어린이에게는 각각 대상(행정안전부장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인천시장상), 우수상(소방청장상/소방서장상)을 시상한다.

*공모 기간 및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 

- 작품 소재** 불조심과 관련한 자유주제로,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안전문화를 담은 포스터
- 공모 대상** 인천시 초등학교생 누구나
- 작품 규격** 4절 크기
- 공모 기간** 2020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출품작 수** 1인 1점
*타 대회 미 출품작,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작품
- 접수 방법**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작품 당 참가신청서 1매 제출 (참가신청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 심사기준** 화재에 대한 경각심 제고, 홍보 효과가 큰 작품 선정
- 입상작 발표** 인천(예선) : 2020년 12월 9일 (인천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
전국(본선) : 2020년 12월 16일 (소방청 홈페이지 게시)
- 시상** 입상작에 한하여 별도 통보

구분	인원(전국/인천)	훈격
대상	1명/1명	행정안전부장관상/인천시장상
최우수상	1명/2명	행정안전부장관상/인천시장상
우수상	2명/관할 소방서별	소방청장상/소방서장상

2019년 수상작 대상



2019년 수상작 최우수상



2019년 수상작 최우수상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119 multimedia reporting service that anyone can easily use



Let's Compliment 칭찬합시다

1 “최진석, 조반석, 임경희 구급대원분들께 감사의 말 전해요”

작성자 : 이영진
소방관 : 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진석,
소방교 조반석, 소방사 임경희

저희 할머니께서 고구마밭 한가운데에 쓰러져 계신다는 말을 듣고 급히 밭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할머니 얼굴을 보니 뜨거운 땀벌에서 얼마나 오래도록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셨을까, 가슴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더군요. 구급대원분들께서는 할머니의 상태에 맞게 응급처치를 해주셨고 근처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셨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조마조마했던 제 걱정과 달리 구급차는 신속히 이동했고 얼마 안 가 병원에도 도착했습니다. 이동 중 응급처치를 잘 해주신 덕에 병원에 도착할 무렵에는 고열에서 미열로 내려가는 등 할머니의 상태도 호전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마치고 당일 바로 퇴원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할머니와 함께 무사히 집에 도착하여 이 글을 씁니다. 구급대원분들께서 빠르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급대원분들 파이팅!

2 “계양소방서 배동환 님을 정말 많~~이 칭찬합니다”

작성자 : 이정자
소방관 : 계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배동환

저희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내의 소방시설도 그만큼 노후되어 안전시설 정비 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배동환 소방관님 덕분에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복구하였고 모든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그 무더운 날 일일이 소방시설을 점검하시며 5층까지 오르락내리락하시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저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져 얼마나 흐뭇하던지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저희 아파트 주민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많~~이 칭찬합니다.

3 “남동소방서 구급대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윤희
소방관 : 남동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방광석, 소방장 김형일,
소방장 송은수, 소방사 방현식, 소방사 이진원, 소방사 전우찬

안녕하세요. 대원분들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 제 인생 처음으로 소방서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반지를 끼고 생활하다가 아토피가 도졌는데, 반지 근처를 마구 긁다가 피부가 부어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반지가 죽어라 하고 당겨도 빠지질 않고 피가 안 통하여 점점 손가락 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써도 안 되어서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 남동소방서로 뛰어갔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도 네다섯 분의 대원 님들이 바로 일어나셔서 소파로 안내해주시고 겁먹은 제게 시원한 커피도 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도 아프지 않게 반지를 잘라주셨어요. 제 생에 처음으로 소방서에 방문한 것인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직원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동소방서 파이팅!!

4 “청라119안전센터 소방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조보민
소방관 : 서부소방서 청라119안전센터 소방위 정지철,
소방사 김슬기

지난 9월 9일 오전 11시 30분쯤, 저희 어머니가 겪은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지러워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구토 증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소방대원분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안심시켜주셨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 코로나19로 인해 갑갑한 방호복을 착용하고도 저희를 돕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119소방대원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그 마음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제게 119소방대원분들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 “옥련119안전센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성자 : 유순미
소방관 : 공단소방서 옥련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치욱,
소방교 윤진희, 소방사 김지혜

안녕하세요. ^^

연수구 옥련119안전센터 구급대원분들을 칭찬하고 싶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하시긴 하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한 번씩 저혈당 쇼크로 위험해지시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119에 구급요청을 하면 대원분들께서 항상 신속히 응급처치를 해주십니다. 쇼크가 온 환자들은 조금 과격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친절히 대해주시고... 지난 일요일 밤에도 신세를 졌네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계양산 등산로 고량재 주변 장수말벌집 제거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김성천
소방관 : 계양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김민규, 소방장 유원일,
소방사 이병철, 소방사 김영덕

계양산을 사랑하는 계양구 주민입니다.

얼마 전, 계양산 고량재 등산로 인근에 장수말벌떼가 저들끼리 세력을 확산하고 있는 걸 발견하여 계양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는 9월 2일에 계양소방서로 이첩되었고, 곧 계양소방서 구조대원 네 분이 장수말벌집을 제거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계양구 주민들은 다시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는
소바와
감사합니다